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일시 | 2018년 8월 17일(금) 14:3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박경미 의원실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일시 | 2018년 8월 17일(금) 14:3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박경미 의원실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시 간	내 용	
14:30~14:40	개회	▶ 사 회 :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외·국제협력팀장)
		▶ 개회사 :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 축 사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40~15:30	주제 발표	▶ 주제1 : 청소년의 통일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발표자 :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2 :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자 :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15:30~15:50	휴 식	
15:50~16:40	토론	좌 장 :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참여연구실장)
		토론1 :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토론2 : 송재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토론3 :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4 :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
16:40~17:00	종합토론	
	폐회	

개·회·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송병국입니다.

111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가 온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폭염피해로 일상의 삶과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폭염은 남북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폭한이나 폭염과 같은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사회적 약자가 다시 ‘기후취약계층’이 되어 힘들게 마련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민들의 일상의 실천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미래세대의 통일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박경미 의원님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박경미 의원님과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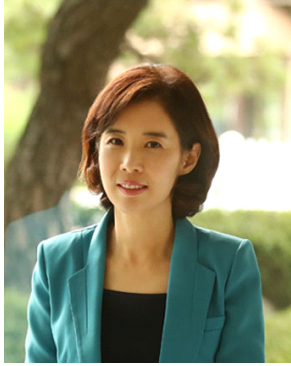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올해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그 결실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남북교류도 점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평화와 공존을 통한 통일국가의 주역이 될 남북 청소년들의 교류와 소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깨우고, 통일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바른 통일(준비)교육 및 남북청소년교류 경험 확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본 세미나는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의식과 통일교육의 현황을 되짚어보고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세미나를 통해 남북 청소년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많이 제시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통일과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어울리는 청소년 통일교육의 방향과 틀을 정립하고 남북 청소년들의 교류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신 본원 직원들과 박경미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8월 1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송 병 국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입니다.

찌는듯한 폭염이 물러서지 않아 유난히도 긴 여름을 보내는 요즘입니다. 남북 관계도 어느 때보다 극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이 때, 통일 한반도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통일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에듀넥스트 시리즈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세미나〉 세 번째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통일 준비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가 평화 무드로 접어들면서, 북한과 우리를 바로 알고 통일로 가는 길목에 안정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금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날 교육자로 강단에 서며, 남북의 학생들을 한 울타리 안에서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행복한 상상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교단 곳곳에서 펼쳐질 것만 같아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한 나라의 역량을 다지고 기틀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육인 만큼, 하나 된 한반도를 준비하는 첫 단계는 단연 통일교육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미리 인식한 듯, 한반도가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틀 때마다 통일 세대를 위한 교육은 빠지지 않는 남북교류협력의 단골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1948년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의 대표가 만난 첫 번째 회담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천명했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01년 6월에는 산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평양과학기술대학 관련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6년에는 남한의 강사가 우리의 교재를 활용하여 북한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찬란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평화 체제를 향한 새로운 시대로 한 발씩 내딛게 되면서 학교 현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보 위주의 통일 교육에서 탈피하여,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평화 통일의 주체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의 통일교육을 가감 없이 통찰하여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보다 나은 것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이제는 떠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발제자로 나서 주신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과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촌철살인의 토론으로 세미나를 풍성하게 꾸며주실 네 분의 토론자 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 역시 오늘 모인 고견들을 놓치지 않고 가슴에 담아,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는 정책으로 여러분께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17일

국회의원

박 경 미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주제발표1

청소년의 통일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이 창 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의 통일 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시과제의 일환임)

〈연구방법〉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중학교 1, 2, 3학년 및 고등학교 1, 2학년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학교방문 조사
표집방법	층화집락표집 (전국을 크게 4개 권역별로 층화한 후 총 22개의 학교를 표집함. 한 학교당 각 학년에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조사기간	2018년 7월 3일 ~ 7월 20일 (약 3주)
표집인원	총 1,392명 (중학교 852명, 고등학교 540명)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63\%$

〈응답자 구성〉		사례수 (명)	전체
	▣ 전체 ▣	(1,392)	100.0
	성별		
	남학생	(733)	52.7
	여학생	(659)	47.3
	학교급		
	중학교	(852)	61.2
	고등학교	(540)	38.8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5.5
	보통	(880)	63.2
	잘 사는 편	(436)	31.3
	거주 지역		
	대도시	(943)	67.7
	중소도시	(387)	27.8
	농어촌	(62)	4.5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9.1
	거의 관심 없음	(418)	30.0
	약간 관심 있음	(692)	49.7
	매우 관심 있음	(155)	11.1

〈통일에 대한 이미지〉									
	사례수 (명)	평화/화합	아닌가족	전쟁/군사	사회갈등/혼란 등	국가발전	통일비용	기타	계
▣ 전체 ▣	(1,389)	34.7	20.7	14.8	11.9	9.5	7.3	1.1	100.0
성별									
남학생	(732)	35.4	15.6	15.7	12.0	11.9	7.8	1.6	100.0
여학생	(657)	33.9	26.5	13.9	11.7	6.8	6.7	0.5	100.0
학교급									
중학교	(851)	33.5	22.6	16.0	9.6	9.6	7.4	1.3	100.0
고등학교	(538)	36.6	17.8	13.0	15.4	9.3	7.1	0.7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30.3	22.4	19.7	9.2	9.2	7.9	1.3	100.0
보통	(878)	35.2	18.9	14.7	12.8	9.7	7.4	1.4	100.0
잘 사는 편	(435)	34.5	24.1	14.3	10.6	9.2	6.9	0.5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33.5	20.8	15.3	12.6	9.8	7.1	1.0	100.0
중소도시	(386)	36.9	20.8	12.2	10.9	10.1	7.8	1.3	100.0
농어촌	(61)	39.3	19.7	24.6	6.6	1.6	6.6	1.6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34.6	27.6	19.7	4.7	3.1	7.1	3.1	100.0
거의 관심 없음	(417)	32.9	27.1	13.9	10.8	7.4	7.7	0.2	100.0
약간 관심 있음	(691)	35.7	17.4	14.8	13.5	10.4	6.9	1.3	100.0
매우 관심 있음	(154)	35.1	13.0	13.6	13.6	16.2	7.8	0.6	100.0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사례수 (명)	전쟁위협이 없어짐	국가경쟁력 강화	원래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 아픔 해결	북한문제 해결	기타	계
■ 전체 ■	(1,391)	43.6	21.9	18.0	12.9	2.7	0.8	100.0
성별								
남학생	(732)	45.5	23.6	17.3	9.3	3.3	1.0	100.0
여학생	(659)	41.6	19.9	18.8	17.0	2.1	0.6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44.0	19.1	17.8	15.1	3.2	0.7	100.0
고등학교	(539)	43.0	26.2	18.4	9.5	2.0	0.9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42.1	26.3	17.1	7.9	6.6	0.0	100.0
보통	(879)	44.3	22.0	17.5	13.1	2.3	0.9	100.0
잘 사는 편	(436)	42.7	20.9	19.3	13.5	3.0	0.7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43.7	20.6	18.3	13.8	2.8	0.8	100.0
중소도시	(386)	44.6	23.6	16.8	11.4	2.8	0.8	100.0
농어촌	(62)	37.1	30.6	21.0	9.7	1.6	0.0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48.0	15.0	14.2	15.7	4.7	2.4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48.6	16.3	18.4	13.4	2.2	1.2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43.2	23.6	17.6	12.9	2.6	0.1	100.0
매우 관심 있음	(154)	28.6	35.1	22.1	9.7	3.2	1.3	100.0

<2008년도 조사>

국가경쟁력강화(31.5%)>원래 같은 민족이니까(22.9%)>전쟁 위험 없어짐(19.7%)>이산가족 아픔해결(17.0%)>북한문제해결(4.0%)>기타(2.6%)

〈통일시기〉

	사례수 (명)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불가능할 것 같다	계
■ 전체 ■	(1,392)	14.2	16.8	27.2	24.9	16.8	100.0
성별							
남학생	(733)	15.1	15.4	24.7	26.1	18.7	100.0
여학생	(659)	13.2	18.4	30.0	23.7	14.7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16.2	17.5	26.6	25.5	14.2	100.0
고등학교	(540)	11.1	15.7	28.1	24.1	20.9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13.2	14.5	30.3	18.4	23.7	100.0
보통	(880)	13.1	16.0	26.6	26.5	17.8	100.0
잘 사는 편	(436)	16.7	18.8	28.0	22.9	13.5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13.6	17.6	27.1	24.5	17.2	100.0
중소도시	(387)	16.0	16.3	27.9	23.3	16.5	100.0
농어촌	(62)	12.9	8.1	24.2	41.9	12.9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17.3	15.0	18.1	26.0	23.6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15.1	15.8	27.0	23.9	18.2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12.7	18.4	29.5	25.1	14.3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16.1	14.2	25.2	25.8	18.7	100.0

<2008년도 조사> 10년 이상(50.0%)>10년 이내(20.3%)>5년 이내(9.5%)>3년 이내(5.1%)>불가능(13.8%)

〈선호하는 통일방식〉

	사례수 (명)	남한자본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방식	북한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방식	각 체제를 상호 혹은 서로 인정하는 방식의 연방제 통일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392)	48.4	0.5	35.8	15.2	100.0
성별						
남학생	(733)	53.6	0.8	31.4	14.2	100.0
여학생	(659)	42.6	0.2	40.8	16.4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44.5	0.4	36.5	18.7	100.0
고등학교	(540)	54.6	0.7	34.8	9.8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50.0	0.0	28.9	21.1	100.0
보통	(880)	48.6	0.5	36.0	14.9	100.0
잘 사는 편	(436)	47.7	0.7	36.7	14.9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48.0	0.4	36.8	14.7	100.0
중소도시	(387)	48.3	0.3	35.7	15.8	100.0
농어촌	(62)	54.8	3.2	22.6	19.4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40.9	0.0	26.8	32.3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43.3	1.0	31.1	24.6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51.4	0.3	39.6	8.7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54.8	0.6	39.4	5.2	100.0

〈남북교류의 중요성〉

	사례수 (명)	관광을 통한 교류 평균 (점/5점)	문화공연을 통한 교류 평균 (점/5점)	남북단일팀 구성 평균 (점/5점)	기업활동을 통한 교류 평균 (점/5점)	남북한 아산가족 상봉 평균 (점/5점)
■ 전체 ■	(1,392)	3.9	3.8	3.7	3.8	4.6
성별						
남학생	(733)	3.9	3.8	3.6	3.8	4.5
여학생	(659)	3.9	3.8	3.8	3.8	4.7
학교급						
중학교	(852)	3.9	3.8	3.8	3.8	4.6
고등학교	(540)	3.9	3.7	3.5	3.8	4.6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3.9	3.6	3.6	3.8	4.6
보통	(880)	3.9	3.8	3.7	3.8	4.6
잘 사는 편	(436)	4.0	3.9	3.7	3.9	4.6
거주 지역						
대도시	(943)	4.0	3.8	3.7	3.9	4.6
중소도시	(387)	3.8	3.7	3.7	3.8	4.5
농어촌	(62)	3.7	3.4	3.4	3.6	4.3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3.7	3.5	3.5	3.5	4.4
거의 관심 없음	(418)	3.8	3.7	3.6	3.7	4.5
약간 관심 있음	(692)	4.0	3.9	3.7	3.9	4.6
매우 관심 있음	(155)	4.1	3.9	3.6	4.1	4.7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5점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1순위응답)〉

	사례수 (명)	남북한 평화적 국가 관계 확립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 개선	남한주민들의 통일 의식 개선	남북한 정치 경제적 교류 확대	중국, 미국 등의 국제적 합의	북한주민들의 통일 의식 개선	남북한 민간 교류 확대	남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 개선	계
■ 전체 ■	(1,392)	36.4	19.8	14.9	7.1	6.3	6.2	5.0	4.3	100.0
성별										
남학생	(733)	31.1	21.8	16.0	8.3	5.9	5.2	5.7	6.0	100.0
여학생	(659)	42.3	17.5	13.7	5.8	6.8	7.3	4.2	2.4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37.7	18.7	15.5	5.9	6.8	7.2	4.3	4.0	100.0
고등학교	(540)	34.4	21.5	13.9	9.1	5.6	4.6	6.1	4.8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47.4	13.2	14.5	9.2	9.2	2.6	2.6	1.3	100.0
보통	(880)	35.6	20.3	15.2	6.6	5.8	6.4	4.9	5.2	100.0
잘 사는 편	(436)	36.2	19.7	14.2	7.8	6.9	6.4	5.7	3.0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36.4	20.6	14.7	7.3	6.0	5.8	5.0	4.1	100.0
중소도시	(387)	37.0	17.6	15.2	7.0	6.5	6.7	5.4	4.7	100.0
농어촌	(62)	33.9	21.0	14.5	4.8	9.7	8.1	3.2	4.8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33.9	22.0	15.7	6.3	6.3	4.7	6.3	4.7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37.1	20.3	15.3	6.7	4.5	6.7	5.7	3.6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36.3	18.6	15.2	7.9	7.2	6.1	4.3	4.3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37.4	21.3	11.6	5.2	7.1	6.5	5.2	5.8	100.0

〈남북한 통일을 위한 국가별 도움 필요성〉

	사례수 (명)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 전체 ■	(1,391)	3.9	2.5	3.3	3.1
성별					
남학생	(732)	3.9	2.4	3.3	3.1
여학생	(659)	3.9	2.5	3.4	3.1
학교급					
중학교	(852)	3.9	2.6	3.3	3.2
고등학교	(539)	3.9	2.3	3.4	3.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5)	3.9	2.3	3.3	3.1
보통	(880)	3.9	2.5	3.3	3.1
잘 사는 편	(436)	3.9	2.5	3.4	3.2
거주 지역					
대도시	(943)	3.9	2.5	3.4	3.1
중소도시	(386)	3.7	2.4	3.3	3.0
농어촌	(62)	3.9	2.5	3.3	3.2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3.7	2.4	3.0	2.9
거의 관심 없음	(418)	3.8	2.6	3.2	3.1
약간 관심 있음	(691)	3.9	2.4	3.4	3.2
매우 관심 있음	(155)	4.1	2.4	3.6	3.1

주.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 ~ 매우 필요하다=5점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도〉

	사례수 (명)	①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①+② 이익이 되지 않음	③ 아는 정도 이익이 될 것이다	④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③+④ 이익이 됨	계
■ 전체 ■	(1,392)	4.5	12.6	17.2	53.4	29.4	82.8	100.0
성별								
남학생	(733)	5.2	11.9	17.1	48.7	34.2	82.9	100.0
여학생	(659)	3.8	13.5	17.3	58.7	24.0	82.7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4.2	13.3	17.5	51.9	30.6	82.5	100.0
고등학교	(540)	5.0	11.7	16.7	55.9	27.4	83.3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7.9	17.1	25.0	46.1	28.9	75.0	100.0
보통	(880)	4.5	12.5	17.0	54.8	28.2	83.0	100.0
잘 사는 편	(436)	3.9	12.2	16.1	52.1	31.9	83.9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4.2	12.4	16.6	51.6	31.7	83.4	100.0
중소도시	(387)	4.4	13.2	17.6	56.8	25.6	82.4	100.0
농어촌	(62)	9.7	12.9	22.6	59.7	17.7	77.4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5.5	18.9	24.4	55.1	20.5	75.6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6.2	14.1	20.3	55.0	24.6	79.7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2.7	11.8	14.6	55.2	30.2	85.4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7.1	7.1	14.2	40.0	45.8	85.8	100.0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도〉

	사례수 (명)	①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①+② 이익이 되지 않음	③ 아는 정도 이익이 될 것이다	④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③+④ 이익이 됨	계
■ 전체 ■	(1,392)	9.7	29.2	38.9	47.6	13.6	61.1	100.0
성별								
남학생	(733)	10.1	26.5	36.6	45.4	18.0	63.4	100.0
여학생	(659)	9.3	32.2	41.4	49.9	8.6	58.6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8.9	27.7	36.6	48.9	14.4	63.4	100.0
고등학교	(540)	10.9	31.5	42.4	45.4	12.2	57.6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11.8	34.2	46.1	47.4	6.6	53.9	100.0
보통	(880)	9.4	29.9	39.3	47.3	13.4	60.7	100.0
잘 사는 편	(436)	9.9	26.8	36.7	48.2	15.1	63.3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9.8	27.6	37.3	47.8	14.8	62.7	100.0
중소도시	(387)	8.5	33.3	41.9	47.0	11.1	58.1	100.0
농어촌	(62)	16.1	27.4	43.5	46.8	9.7	56.5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21.3	33.1	54.3	33.1	12.6	45.7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8.6	34.9	43.5	47.1	9.3	56.5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7.9	26.4	34.4	52.2	13.4	65.6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11.0	22.6	33.5	40.0	26.5	66.5	100.0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

	사례수 (명)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좋겠다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 상관없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계
□ 전체 □	(1,392)	19.8	50.4	17.9	11.9	100.0
성별						
남학생	(733)	23.5	48.3	17.9	10.4	100.0
여학생	(659)	15.8	52.8	17.9	13.5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22.1	50.1	16.2	11.6	100.0
고등학교	(540)	16.3	50.9	20.6	12.2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15.8	56.6	13.2	14.5	100.0
보통	(880)	19.1	49.9	19.1	11.9	100.0
잘 사는 편	(436)	22.0	50.5	16.3	11.2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21.6	48.5	18.2	11.7	100.0
중소도시	(387)	16.3	55.8	16.8	11.1	100.0
농어촌	(62)	14.5	46.8	19.4	19.4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10.2	47.2	29.9	12.6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12.9	53.3	19.9	13.9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21.8	51.3	15.8	11.1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37.4	41.3	12.3	9.0	100.0

<2008년도 조사>

통일이 되면 좋겠다(41.6%)>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31.2%)>지금 이대로가 좋다(16.3%)>나와 상관없다(9.2%)

〈통일교육 빈도〉

	사례수 (명)	① 전혀 받고 있지 않다	② 거의 받고 있지 않다	①+② 받고 있지 않음	③ 어느 정도 받고 있다	④ 자주 받고 있다	③+④ 받고 있음	계
□ 전체 □	(1,392)	5.5	21.8	27.3	63.5	9.2	72.7	100.0
성별								
남학생	(733)	5.9	20.5	26.3	63.3	10.4	73.7	100.0
여학생	(659)	5.0	23.4	28.4	63.7	7.9	71.6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4.1	15.0	19.1	69.1	11.7	80.9	100.0
고등학교	(540)	7.6	32.6	40.2	54.6	5.2	59.8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13.2	22.4	35.5	59.2	5.3	64.5	100.0
보통	(880)	5.7	22.0	27.7	63.1	9.2	72.3	100.0
잘 사는 편	(436)	3.7	21.3	25.0	65.1	9.9	75.0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5.6	19.8	25.5	64.5	10.1	74.5	100.0
중소도시	(387)	4.4	27.9	32.3	61.2	6.5	67.7	100.0
농어촌	(62)	9.7	14.5	24.2	62.9	12.9	75.8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14.2	23.6	37.8	51.2	11.0	62.2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4.5	24.9	29.4	64.8	5.7	70.6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4.2	20.2	24.4	66.3	9.2	75.6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6.5	19.4	25.8	57.4	16.8	74.2	100.0

〈통일교육 내용〉

	사례수 (명)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후 국가 미래	북한의 실상	남북한 사회 비교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정부의 대북 정책	기타	계
▣ 전체 ▣	(1,379)	39.2	23.9	14.1	13.1	9.1	0.5	100.0
성별								
남학생	(723)	37.8	21.9	14.5	14.5	10.5	0.8	100.0
여학생	(656)	40.7	26.2	13.7	11.6	7.6	0.2	100.0
학교급								
중학교	(845)	38.9	23.9	16.7	10.7	9.2	0.6	100.0
고등학교	(534)	39.5	24.0	10.1	17.0	9.0	0.4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40.8	18.4	17.1	13.2	10.5	0.0	100.0
보통	(870)	38.9	24.4	13.6	13.4	9.2	0.6	100.0
잘 사는 편	(433)	39.5	24.0	14.8	12.5	8.8	0.5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35)	39.1	23.0	14.2	13.3	9.6	0.7	100.0
중소도시	(383)	39.7	26.6	12.0	13.3	8.4	0.0	100.0
농어촌	(61)	36.1	21.3	26.2	9.8	6.6	0.0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2)	28.7	44.3	13.9	9.0	3.3	0.8	100.0
거의 관심 없음	(415)	42.2	25.5	14.7	8.7	8.0	1.0	100.0
약간 관심 있음	(688)	40.0	21.5	15.1	13.5	9.7	0.1	100.0
매우 관심 있음	(154)	35.7	14.3	8.4	26.6	14.3	0.6	100.0

〈북한에 대한 인식〉

	사례수 (명)	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지원대상이다	② 우리와 협을 함치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③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④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계
▣ 전체 ▣	(1,392)	16.6	57.3	9.5	10.6	10.8	100.0
성별							
남학생	(733)	16.0	54.6	9.8	13.9	10.6	100.0
여학생	(659)	17.3	60.2	9.1	7.0	10.9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16.9	56.0	12.0	10.4	10.7	100.0
고등학교	(540)	16.1	59.3	5.6	10.9	10.9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23.7	42.1	2.6	15.8	17.1	100.0
보통	(880)	16.1	56.6	10.7	10.8	11.1	100.0
잘 사는 편	(436)	16.3	61.2	8.3	9.4	8.9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16.4	58.0	8.3	10.6	10.8	100.0
중소도시	(387)	16.3	58.4	10.3	9.3	10.9	100.0
농어촌	(62)	21.0	38.7	22.6	19.4	9.7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22.8	43.3	9.4	8.7	20.5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18.7	54.1	13.9	11.0	9.3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14.2	61.1	8.7	11.8	8.5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16.8	60.0	1.3	5.8	16.8	100.0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사례수(명)	핵무기	독재정권	같은 민족	사회주의 국가	극심한 식량난	기타	계
□ 전체 □	(1,392)	35.6	22.1	17.0	11.8	9.6	4.0	100.0
성별								
남학생	(733)	36.4	21.4	17.6	10.1	9.0	5.5	100.0
여학생	(659)	34.7	22.8	16.2	13.7	10.3	2.3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40.3	18.0	18.8	9.9	8.6	4.6	100.0
고등학교	(540)	28.3	28.5	14.1	14.8	11.3	3.0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43.4	21.1	14.5	5.3	9.2	6.6	100.0
보통	(880)	35.3	22.4	16.7	10.5	10.3	4.8	100.0
잘 사는 편	(436)	34.9	21.6	17.9	15.6	8.3	1.8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35.1	23.0	16.2	12.2	9.4	4.0	100.0
중소도시	(387)	34.9	20.9	18.6	10.9	10.9	3.9	100.0
농어촌	(62)	48.4	14.5	17.7	11.3	4.8	3.2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48.8	12.6	10.2	11.0	11.0	6.3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40.4	18.4	15.8	11.5	10.8	3.1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33.4	24.6	16.8	11.7	9.7	3.9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21.9	28.4	26.5	13.5	5.2	4.5	100.0

<2008년도 조사>

같은 민족(26.8%)>핵무기(21.5%)>사회주의 국가(18.4%)>극심한 식량난(16.1%)>독재정권(15.5%)

〈북한에 대한 신뢰정도〉

	사례수(명)	믿을 수 없다	어느 정도 믿는다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계
□ 전체 □	(1,392)	29.2	40.2	25.1	5.5	100.0
성별						
남학생	(733)	29.2	39.8	23.1	7.9	100.0
여학생	(659)	29.3	40.5	27.3	2.9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27.5	41.3	25.0	6.2	100.0
고등학교	(540)	32.0	38.3	25.2	4.4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34.2	39.5	23.7	2.6	100.0
보통	(880)	29.7	39.1	26.0	5.2	100.0
잘 사는 편	(436)	27.5	42.4	23.4	6.7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29.7	38.9	25.3	6.0	100.0
중소도시	(387)	27.9	42.9	25.1	4.1	100.0
농어촌	(62)	30.6	41.9	21.0	6.5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48.0	26.0	18.1	7.9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29.7	43.3	24.4	2.6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24.7	42.5	27.6	5.2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32.9	32.9	21.3	12.9	100.0

<2008년도 조사>

어느 정도 믿는다(41.9%)>믿을 수 없다(30.6%)>다른 나라와 비슷하다(18.7%)>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7.7%)

〈북한도래에 대한 생각〉

	사례수 (명)	적극 도우면서 친하게 사귀겠다	마음이 통하면 친구로 사귀겠다	어울리기 힘들다	같이 놀고 싶지 않다	계
□ 전체 □	(1,392)	18,2	61,5	15,9	4,4	100,0
성별						
남학생	(733)	17,6	60,7	16,5	5,2	100,0
여학생	(659)	18,8	62,4	15,3	3,5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19,6	57,9	17,3	5,3	100,0
고등학교	(540)	15,9	67,2	13,9	3,0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11,8	59,2	19,7	9,2	100,0
보통	(880)	16,8	63,6	15,7	3,9	100,0
잘 사는 편	(436)	22,0	57,6	15,8	4,6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19,3	58,9	17,3	4,6	100,0
중소도시	(387)	16,0	67,2	12,9	3,9	100,0
농어촌	(62)	14,5	66,1	14,5	4,8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11,0	51,2	26,8	11,0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13,4	64,1	18,2	4,3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19,9	63,7	13,3	3,0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29,0	52,9	12,9	5,2	100,0

<2008년도 조사>

마음이 통하면 친구로 지낸다(55.1%)>어울리기 힘들다(23.3%)>같이 놀고 싶지 않다(10.9%)>친하게 지낸다(9.4%)

〈북한사람과의 관계〉

	북한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북한사람과 친구로 사귀 수 있다	북한사람과 직접동료로 알할 수 있다	북한사람과 이웃에 함께 살 수 있다	동일비용을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동일로 인한 삼남발생으로 내 재산이 파해를 입어도 감수할 수 있다	동일이 되면 북한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다	북한사람과 기회가 닿으면 동업할 수 있다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 전체 □	3.1	3.9	3.9	3.9	2.7	2.5	2.9	3.4
성별								
남학생	3.3	3.9	3.9	3.9	2.7	2.6	3.0	3.5
여학생	2.9	4.0	4.0	4.0	2.7	2.4	2.8	3.3
학교급								
중학교	3.1	3.9	4.0	3.9	2.8	2.6	3.0	3.4
고등학교	3.1	4.0	3.9	3.9	2.6	2.4	2.8	3.3
가정 형편								
가난한 편	3.2	3.8	3.9	3.8	2.4	2.2	2.8	3.2
보통	3.1	3.9	3.9	3.9	2.7	2.5	2.9	3.4
잘 사는 편	3.0	4.0	4.0	4.0	2.8	2.6	2.9	3.4
거주 지역								
대도시	3.1	4.0	4.0	4.0	2.8	2.5	2.9	3.4
중소도시	3.0	3.9	3.9	3.9	2.6	2.5	2.9	3.3
농어촌	3.0	3.6	3.6	3.7	2.7	2.5	2.8	3.2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2.6	3.5	3.5	3.5	2.4	2.3	2.5	2.9
거의 관심 없음	3.0	3.8	3.8	3.8	2.7	2.5	2.9	3.3
약간 관심 있음	3.2	4.1	4.1	4.1	2.7	2.5	3.0	3.5
매우 관심 있음	3.2	4.2	4.2	4.1	2.9	2.6	3.1	3.7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남북청소년교류시 프로그램 참여 의향-1〉

	수학여행		관광		음악활동		미술활동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의향 있음
□ 전체 □	21.4	78.6	18.6	81.4	40.1	59.9	39.7	60.3
성별								
남학생	22.3	77.7	20.5	79.5	47.5	52.5	49.2	50.8
여학생	20.4	79.6	16.6	83.4	31.9	68.1	29.0	71.0
학교급								
중학교	19.2	80.8	18.1	81.9	37.7	62.3	35.9	64.1
고등학교	24.9	75.1	19.5	80.5	43.9	56.1	45.6	54.4
가정 형편								
가난한 편	26.7	73.3	29.3	70.7	46.1	53.9	40.8	59.2
보통	22.6	77.4	19.0	81.0	40.7	59.3	40.1	59.9
잘 사는 편	17.9	82.1	16.1	83.9	37.8	62.2	38.5	61.5
거주 지역								
대도시	22.1	77.9	18.6	81.4	41.1	58.9	40.7	59.3
중소도시	20.6	79.4	19.2	80.8	37.7	62.3	38.0	62.0
농어촌	16.1	83.9	16.1	83.9	38.7	61.3	33.9	66.1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42.1	57.9	35.4	64.6	57.5	42.5	51.2	48.8
거의 관심 없음	22.5	77.5	21.3	78.7	42.8	57.2	40.7	59.3
약간 관심 있음	16.5	83.5	13.7	86.3	36.4	63.6	37.6	62.4
매우 관심 있음	23.2	76.8	19.4	80.6	34.8	65.2	36.8	63.2

주.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와 '참여하고 싶지 않다' 는 '의향없음' 으로, '참여하고 싶다' 와 '매우 참여하고 싶다' 는 '의향있음' 으로 리코딩하여 분석

〈남북청소년교류시 프로그램 참여 의향-2〉

	스포츠활동		유적지답사		아영활동		전통문화체험		컴퓨터게임	
	의향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 전체 □	27.9	72.1	30.5	69.5	24.1	75.9	31.3	68.7	26.3	73.7
성별										
남학생	27.6	72.4	31.2	68.8	24.2	75.8	36.7	63.3	21.4	78.6
여학생	28.3	71.7	29.7	70.3	23.9	76.1	25.4	74.6	31.9	68.1
학교급										
중학교	25.5	74.5	31.0	69.0	23.3	76.7	28.9	71.1	22.8	77.2
고등학교	31.7	68.3	29.7	70.3	25.3	74.7	35.1	64.9	31.9	68.1
가정 형편										
가난한 편	35.5	64.5	46.7	53.3	34.7	65.3	52.0	48.0	30.7	69.3
보통	28.8	71.2	30.2	69.8	24.7	75.3	31.3	68.7	28.1	71.9
잘 사는 편	24.8	75.2	28.3	71.7	20.9	79.1	27.8	72.2	22.1	77.9
거주 지역										
대도시	27.9	72.1	31.3	68.7	24.7	75.3	31.7	68.3	27.3	72.7
중소도시	28.2	71.8	30.1	69.9	22.3	77.7	31.7	68.3	24.6	75.4
농어촌	25.8	74.2	21.0	79.0	25.8	74.2	22.6	77.4	22.6	77.4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40.9	59.1	59.1	40.9	44.4	55.6	59.5	40.5	33.1	66.9
거의 관심 없음	25.4	74.6	35.6	64.4	26.9	73.1	34.7	65.3	26.9	73.1
약간 관심 있음	27.1	72.9	24.5	75.5	18.8	81.2	25.4	74.6	24.2	75.8
매우 관심 있음	27.7	72.3	20.0	80.0	23.2	76.8	25.8	74.2	29.0	71.0

주.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와 '참여하고 싶지 않다' 는 '의향없음' 으로, '참여하고 싶다' 와 '매우 참여하고 싶다' 는 '의향있음' 으로 리코딩하여 분석

〈북한으로의 유학 의향〉

	사례수 (명)	가고 싶지 않다	가고 싶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391)	31.7	19.3	49.0	100.0
성별					
남학생	(732)	32.8	19.5	47.7	100.0
여학생	(659)	30.5	19.1	50.4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28.6	19.8	51.5	100.0
고등학교	(539)	36.5	18.6	44.9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36.8	15.8	47.4	100.0
보통	(879)	29.9	17.9	52.2	100.0
잘 사는 편	(436)	34.4	22.9	42.7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2)	33.3	19.4	47.2	100.0
중소도시	(387)	28.2	19.9	51.9	100.0
농어촌	(62)	29.0	14.5	56.5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55.9	9.4	34.6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30.4	14.4	55.3	100.0
약간 관심 있음	(691)	27.4	21.7	50.9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34.8	30.3	34.8	100.0

결론 및 정책 제언

〈결론〉

○ 청소년의 70% 가량이 통일을 희망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청소년들은 통일이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이 수치는 특히 10년 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비교적 낮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임.

〈결론〉

○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이 국가에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후 국가 미래에 대해 언급하였음.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응답은 2위)

→ 청소년들에게 통일이 왜 필요하고 실제로 어떤 이익이 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

〈결론〉

○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관해 핵무기나 독재정권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될 정도로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한청소년이나 북한주민과는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음. 특히 남북청소년교류시 관광이나 체육 활동 등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남북간 청소년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 마련 필요

〈정책 제언〉

○ 청소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통일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교육 강화

→ 단순히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을 떠나, 통일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고 어떤 효과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
가령, 통일이 되면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고 고구려나 고려의 옛 유적지를 많이 답사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함

〈정책 제언〉

○ 북한의 실상 교육 강화

→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북한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사회의 모습을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 남북청소년간의 교류 활성화

→ 청소년들은 같은 또래의 북한청소년들에 대한 높은 친밀감을 보였고, 다양한 남북 교류프로그램(관광, 수학여행, 야영, 스포츠 활동 등)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음. 따라서, 남북 수학여행, 남북 청소년 축구대회 등 스포츠 대회를 통한 교류 활성화, 남북 청소년이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는 남북음악교류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문화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남북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온라인게임대회를 개최하여 남북청소년들이 함께 기량을 기르고 남북간 활발한 IT 교류를 장려

〈정책 제언〉

○ 남북 청소년 학술행사 활성화

→ 남북한 간 정치적, 문화적 이질감이 큰 만큼 상호 체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세미나 개최 등 청소년 참여 학술대회 개최를 활성화함

○ 세계잼버리대회 공동 참가

→ 2023년 새만금 일대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에 북한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감사합니다.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주제발표2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2018.8.17

김진숙(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목 차

- I. 서론- 통일 교육의 개념
- II. 통일 교육의 현황
- III. 통일 교육의 결과- 개선을 위한 근거
- IV. 결론- 통일 교육의 개선 방안

I. 서론- 통일 교육의 개념

무엇이 통일 교육인가?

법적인 규정- 통일교육지원법(1999.8.6 고시)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I. 서론- 통일 교육의 개념

통일교육 개념의 키워드

자유민주주의, 신념,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 통일을 이룩,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



통일을 가르치는 교육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II. 통일 교육의 현황

교육과정 문서에서의 통일교육

- 교육과정 총론(범교과학습주제, 계기교육), 교과 교육

통일교육의 내용

통일교육의 방법

II. 통일 교육의 현황

1. 교육과정 총론 – 범교과학습주제, 계기교육

교육과정	해당 항목	내용	비고
3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1973)	제 1. 교육 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1. 기본 방침 방침 2. 일반 목표 목표	우리는 조국 근대화를 조속히 성취하고 국토를 평화 화적으로 통일함으로써 민족 중흥의 사명을 완수하 기 위하여 거족적으로 유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역사적 시점에서 있다. 나. 국가 발전 ○ 민족 중흥을 위한 사명감이 투철하게 한다. ○ 주제 의식을 뚜렷이 하고, 민족적 긍지를 가지게 한다. ○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를 확립 게 한다.	목표

II. 통일 교육의 현황

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7)	1. 교육목표와 편제 다. 운영지침	국민 정신 교육, 통일 안보 교육 , 안전 교육, ...등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되, 특히 기본적인 생활 습관 형성에 유의하도록 한다.	8개중 1개
6차, 7차, 2007개정, 2009개정 ----- '통일교육' 으로 계속			
2015 개정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 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 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 ·지속가능발전 교육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 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10개중 1개 계기교육

II. 통일 교육의 현황

시도 교육청의 계기교육 지침

[서울특별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단위학교에서 주제별, 상황별로 적절한 실시 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2) 구체적인 실시 방향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3) 학년 및 교과 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 과정안 및 수업 자료에 대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II. 통일 교육의 현황

시도 교육청의 통일교육 지침- 서울시 사례

1) 목표

건전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지를 다지며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를 가진다.

2) 내용

가) 역사와 현재, 미래의 관계 속에서 분단과 통일의 의미를 파악하고, 통일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가진다.

나) 교육 내용은 **역사이해, 유적 답사, 북한 알기,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 통일의 필요성, 통일 후 대비** 등으로 구성한다.

3) 방법

가) 통일교육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가상놀이, 역할극, 게임 등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생 체험·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 조사학습, 프로젝트학습, 토론 등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고 현재와 미래와의 연관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교육부, 통일부, 교육청, 기타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II. 통일 교육의 현황

시도 교육청의 통일교육 지침- 전남 사례

1) 남북한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의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둔다.

2)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과정, 통일을 위한 준비, 북한 이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문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3)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도한다.

4) 바로 알기, 체험하기, 표현하기, 다짐하기 등의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참여 하고 경험하여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5) 통일교육원 IPTV 프로그램, 통일·안보 사이트(통일교육원, 인터넷 평화교육, 아름다운 통일, 통일 에듀넷) 등의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활용하고, 현장학습, 수학여행, 문화답사, 계기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I. 통일 교육의 현황

시도 교육청의 통일교육 지침- 경북 사례

- 가. 학교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 나.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험·참여 중심의 통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일 관련 계기교육을 활성화한다.
- 다. 통일 동아리 운영, 통일 리더 캠프, 나라사랑 사관캠프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통일 역량을 함양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한다.
- 라. 학교 현장에서 쉽게 통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일 교육 자료를 제작 지원한다.
- 마. 교원 대상 통일 연수를 강화하고, 교사들의 학교 통일 교육과정 참여를 확대한다.

II. 통일 교육의 현황

시도 교육청 지침에서 본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

통일교육의 내용 :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과정, 통일을 위한 준비, 북한 이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문제

통일교육의 방법:

- (1) 시간- 교과, 창체 모두 강조하나 실제로 거의 창체
- (2) 방법
 - 학생 스스로 참여 하고 경험하여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 강조

계기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

범교과학습주제 중 통일교육은 대표적인 계기교육 주제로 활용됨

II. 통일 교육의 현황

2. 교과 교육과정 내용 - 국어

교과	영역	핵심가치	내용 요소
			중학교
			1-3학년
국어	문법	•국어에 대한 태도 •국어 사랑 •국어 의식	•통일 시대의 국어에 대한 관심

II. 통일 교육의 현황

2. 교과 교육과정 내용 - 도덕

교과	영역	핵심 가치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도덕 (공통)	사회 · 공동체 와 의 관계	정의	•통일은 왜 필요 할까? (통일의지, 애국심)	•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은 무엇일까?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활과 윤리(선택)	평화와 공존의 윤리	성실, 배려, 정의, 책임				2. 민족 통합의 윤리: 통일이 지향해야 할 윤리적 가치는 무엇인가?

II. 통일 교육의 현황

2. 교과 교육과정 내용 - 사회(일사,지리,역사)

교과	영역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6학년	1-3학년	
사회 (공통)	정치	지구촌 평화,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남북통일	국제 사회, 국제 사회 행위 주체, 국제 사회 의 갈등 및 협력, 외교, 우리나라의 국가 간 갈등	국제 관계 변화, 세계 화, 국제 문제, 국제기 구의 활동,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한반도의 국제 질서
	장소와 지역			·북한 지역의 특성과 통일 국토의 미래
	환경과 인간 생활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모습
	정치·문화사	·통일을 위한 노력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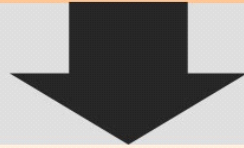
II. 통일 교육의 현황

2. 교과 교육과정 내용으로서의 통일교육- 요약

- 국어, 도덕, 사회, 역사의 정규 교과내용으로 포함됨
- 각 교과에 북한 이해 관련된 소재, 주제에서 다룸
-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다루지만 연계성은
고려되지 못함
- 각 교과의 주요 교육내용이 아니며, 주로 학기말,
학년말 교육내용으로 배치되어 가르쳐지지 않거나
소홀해지기 쉬움

III. 통일 교육의 결과- 개선을 위한 근거

첫째, 통일교육은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 왔는가?
둘째,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 통일교육의 프로그램 평가

- '범교과학습주제'의 실행, 교과 교육과정 실행 결과

(2) 통일에 대한 인식과 통일 교육의 만족도

III. 통일 교육의 결과- 개선을 위한 근거

1. 통일교육의 실효성

연중 통일교육은 언제,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1) 범교과학습주제- 필수가 아닌 선택

(2) 교과에 포함된 통일교육의 내용

- 필수(필수 교과인 경우)

정확한 실행 결과 데이터 없음

- '교과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학생들: 81.9%

- '연간 통일교육 운영시간'(통일교육 받은 기억에 대한 질문): "2~3시간"(통일교육원, 2018)

III. 통일 교육의 결과- 개선을 위한 근거

2. 통일 인식 조사

(1) 통일의 필요성

- 초·중고 학생들의 인식



[그림] '통일의 필요성'- 2017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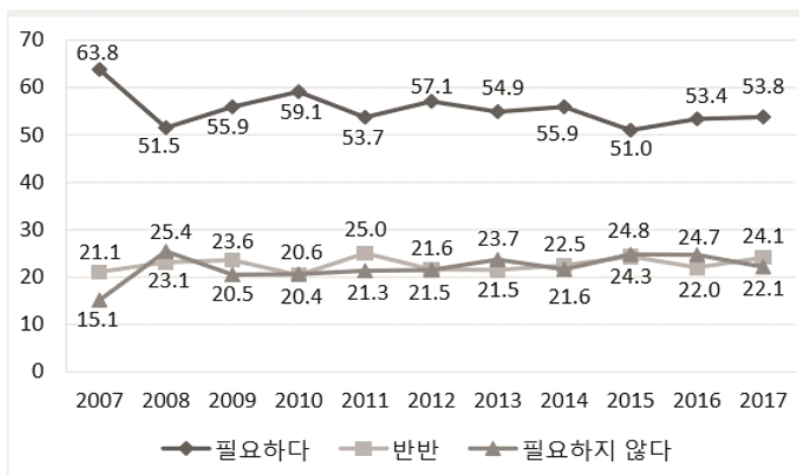
- 학교급 별로는 초등 74.4%(2.1% ↑), 중 59.3%(1% ↓), 고등 50.2%(2.6% ↓)

III. 통일 교육의 결과- 개선을 위한 근거

2. 통일 인식 조사

(1) 통일의 필요성

- 일반 성인들의 인식



[그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일의식

III. 통일 교육의 결과- 개선을 위한 근거

2. 통일 인식 조사

(1) 통일의 필요성

- 초중고 학생들, 일반 성인의 인식 결과 종합

성인들의 경우 2007년 이후 2008년에 50%대로 낮아진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큰 차이가 없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함
다만, **적극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계속 감소하여 20% 미만임**

초중등학교 학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

- 긍정적인 응답이 떨어져 고등학교급에 가면 50%를 약간 상회함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결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옴**

III. 통일 교육의 결과- 개선을 위한 근거

2. 통일 인식 조사

(2)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 초중고 학생들의 인식: △전쟁불안 해소(31.8%) △국력강화(25%) △한민족(15%) △이산가족 문제 해결(14.2%)



[그림] '통일이 필요한 이유'- 2017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III. 통일 교육의 결과- 개선을 위한 근거

2. 통일 인식 조사

(2)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 일반 성인들의 인식: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대체로 줄어듬. 이산가족, 전쟁위협감소 응답이 증가함.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 전쟁위협 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합계 (N)
2007	50.7	8.9	19.2	1.8	18.7	0.7	1,197
2008	58.7	6.6	14.5	2.9	17.2	0.1	1,206
2009	44.3	8.5	23.5	4.2	18.7	0.8	1,195
2010	43.3	7.0	24.2	4.0	20.8	0.6	1,193
2011	41.9	7.2	27.3	4.8	17.7	1.1	1,197
2012	46.0	9.1	25.3	4.4	14.5	0.8	1,199
2013	40.4	8.3	30.8	5.5	14.2	0.8	1,198
2014	42.1	9.1	27.0	3.9	17.6	0.3	1,200
2015	40.7	12.3	26.3	6.3	14.0	0.4	1,198
2016	38.6	11.8	29.8	5.0	14.2	0.7	1,200
2017	40.3	10.5	32.5	4.0	12.5	0.2	1,200

III. 통일 교육의 결과- 개선을 위한 근거

2. 통일 인식 조사

(2)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 초중고 학생들, 일반 성인의 인식 결과 종합
-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초중등학교 학생과 성인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음
- **학생들: 전쟁불안 해소> 국력강화 >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 문제**
- **성인들: 같은 민족이니까> 전쟁 위협 감소> 한국 선진국되기 위해>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북한주민 잘살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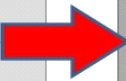


학교 통일교육의 주안점에 대해 통일의 필요에 대한 이유 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IV. 통일 교육의 개선방안

1. 통일 교육 개념의 개선

(1) 통일 교육 개념의 외연 확대- 통일교육에서 통일평화교육으로
: 통일교육지원법, 교육과정 전반을 통한 개념 재정립 및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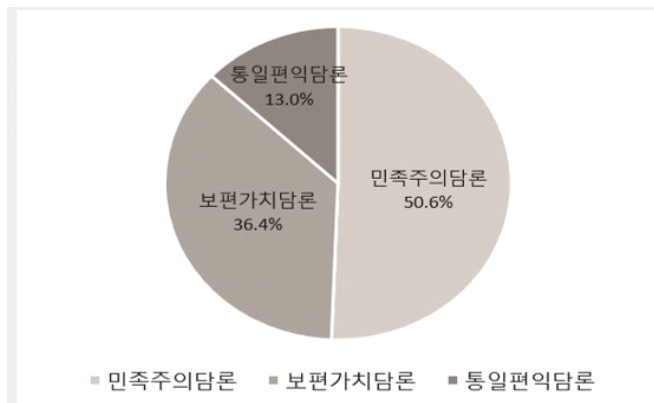
통일교육		통일 평화교육
협소한 통일 개념		긴장완화와 교류를 강조한 통일
'하나됨'의 강조		'통합'의 강조
남북한 통일 문제		주변국과 관계를 중시한 한반도 통일 문제
주입식 지식 전달 내용으로서의 통일 교육		체험 학습과 사유의 대상으로서의 통일 평화 교육

IV. 통일 교육의 개선방안

1. 통일 교육 개념의 개선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내용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시대변화, 세대간 인식 차이 반영 필요



출처: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2018), p.177

[그림] 통일담론집단의 분포

IV. 통일 교육의 개선방안

1. 통일 교육 개념의 개선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내용

- 민족주의 담론 외에 통일편익 담론, 보편가치 담론의 균형적 접근 적용
- 학교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 담론으로서 통일의 필요성은 효율성이 떨어짐

민족주의 담론	‘민족통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가장 보편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된 개념
통일편익 담론	경제적 실리, 정치적 안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증진’을 위한 통일 실용주의적 통일담론
보편가치 담론	한반도에서 ‘민주주의, 평화, 인권, 인도주의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 가치들을 신장시키기 위한 통일’

IV. 통일 교육의 개선방안

2. 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일 교육의 실효성 증대

(1) 교육과정 총론에서의 통일 평화교육 강화

통일은 우리의 미래인가, 아닌가?

교육목적, 교육과정 구성 방침 등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통일문제의 성격

- 첫째,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
- 둘째,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
- 셋째,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
- 넷째,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다섯째, 통일은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함

통일교육원(2018)

IV. 통일 교육의 개선방안

2. 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일 교육의 실효성 증대

(1) 교육과정 총론

현행 범교과학습주제 10개중 1개로서의 통일



- 교육목적, 교육과정 구성 방침 등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의 고려
- 총론의 목표 수준(인간상, 핵심 역량)에서 '평화교육'의 요소가 강조됨
- 현행 범교과학습주제로서의 통일 교육을 교과 공통 사항의 내용, 방법, 소재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IV. 통일 교육의 개선방안

2. 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일 교육의 실효성 증대

(1) 교육과정 총론

교육목적, 교육과정 구성 방침 등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의 고려

항목	반영 방안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통일된 민주 국가 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략>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중략) 차. 교육활동을 통해 남북한 통일 문제 에 대한 이해가 내면화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학교급별 목표	초등학교 (3) 남북한 우리 문화 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중학교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 및 다양한 문화 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고등학교 (3) 남북한 우리의 문화 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IV. 통일 교육의 개선방안

2. 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일 교육의 실효성 증대

(2)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통일 평화교육 강화

- 범교과학습주제로서의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교과에 반영함
- 평화교육의 의미를 추가함으로써 '평화 역량'이 강조됨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통일 평화 교육 강화 방안

- 교과 내용으로의 적극적 반영이 가능한 교과:
국어, 지리, 도덕, 사회
- 남북한 통합, 북한 사회 이해를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교과:
모든 교과 해당

감사합니다.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토론

-
- 토론1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토론2 **송재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토론3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4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신 두 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후 평화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고조 됨
- 기존 남북 대결과 안보 위협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통일·안보교육을 극복하고 체제 우월적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인 평화 공존을 위한 통일교육과 더불어 변화하는 북한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
- 통일교육은 자유,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의 기본적 가치와 민주적 의사결정, 문제해결능력 등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은 안보교육의 요소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적 요소를 보완해야 함. 또한 미래의 통일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과정이어야 함
- 기존의 남북 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 활동이 대부분 중단되어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으로 장기적으로 남북 간 교육 교류·협력이 쉬운 분야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임. 또한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교육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 제기 됨

- 동서독의 청소년 교류는 ‘동서정치(Ost-West-Politik)’에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인적교류이며 제도화이며, 당시 동서독의 정치적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신뢰형성의 중요한 수단이었음
- 동서독의 청소년 교류는 지속적인 제도화 노력과 정치행위자의 관심과 결단이 있어 가능하였음. 당국간 협상을 ‘문화협정’, ‘청소년 단체간의 단체 여행에 관한

협약'같은 제도화와 '호네커의 서독 방문'(1988) 등 정치적 행위 등을 통해 청소년 교류의 확대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었음

- 분단국의 청소년 교류에 있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치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성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청소년 교류는 통일전후의 독일 사회에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 특히 통독 후 독일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임. 그들이 비록 서로 다른 사회적 이념과 체제에서 성장했지만 청소년 교류의 경험을 통하여 일찍부터 통일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은 남북한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것임.(출처: 신두철, 유럽연구, 제32권4호, 2014년 겨울호)

-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통일부, 시·도교육청,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과 소통의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학교통일교육에서 교육부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변화(change)의 요구에서 변화를 일으키는(changing) 통일교육으로

송 재 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본 토론회의 토론자 참여 요청을 받고 나서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당시에는 한반도 비핵화 등 콘텐츠(?)가 무엇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지금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보니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 ~’ 등 다소 걱정적인 문법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걱정성을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오늘의 주제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읽어보니 오히려 차분하다. 이창호 선임 연구위원님의 「청소년의 통일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는 현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인식과 바램을 통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정책 제언도 당위적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차분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분석은, 현재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교통일교육 방향 정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이러한 시사를 넘어, 토론자는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통일과 평화 문제에 대한 열린 논의, 학교통일교육의 전면적 개선 등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통일(교육)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열린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구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일’이라는 용어의 개념적 지위가 통일(교육)과 평화(교육)라는 연계적 스펙트럼의 혼란 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 통일(교육) 중심의 의미 부여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통일은 일차적으로 분단 극복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일은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 것인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2018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통일교육원), 2018]

< 평화(교육) 중심의 의미 부여 >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일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며, 통일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이 보장되는 미래를 희망하고 있다.” [「2018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통일교육원), 2018]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독일 뢰르버재단 문재인 대통령 초청연설(2017.7.6.)’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8]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4.27 판문점 선언]

“평화학 관점에서 보면 안보라는 문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정책이 안보 정책에 종속되는 순간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평화는 지배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박한식.강국진, 「선을 넘어 생각한다」, 부.키, 2018]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ooo, 2018.5.28.] “우리의 소원은 평화!”[oo일보, 2018.6.8.]

통일, 평화, 민주, 민족공동체, 안보 …….

이런 의미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까? 논의의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로 이어

질 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장착했던 도그마를 과감하게 버리고 다음과 같은 확장성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냉전과 분단을 진정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덕목들이 남북 모두에서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평화’ 통일이 단순히 전쟁 없음의 상태를 넘어 더 많은 소통을 통한 화해를 의미하는 것처럼, ‘민주’ 통일이란 의미도 단순히 공산당의 자리에 시장과 의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및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에 기초한 공동의 합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동기, “독일통일과 한반도”, 「역사수업,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다」(서울시교육청, 2018)]

둘째, 통일교육은 이전의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부분적 보완이 아니라 전면적 개선이 요구된다. 단순히 ‘학생 중심의 참여형 통일 수업’과 같은 교육 방법론적 수준에서의 보완적 개선이 아니라, 재정립된 통일교육의 의미와 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학교 통일교육은 4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통일부(통일교육원)에서는 매년 「통일교육 지침서」,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를 발간하여 전국에 보급한다. 통일교육 출발의 1단계로 중앙정부(통일부)에서 제시하는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인 셈이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학교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하고[2단계], 시도교육청은 나름대로의 학교통일교육 계획 등을 수립하여 또 일선학교로 하달한다[3단계]. 4단계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통일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내용의 구성에 대한 자율성은 다른 교육 분야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통일부의 지침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인정하더라도). 그러다보니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시대가 변하고 한반도의 통일 환경이 변해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공식적인(?) 통일교육은 재미도 없고 절실하지도 않다.

발표자의 연구를 보면 학생들에게 ‘통일교육’하면 떠오르는 내용으로 1위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후 국가 미래’, 2위가 ‘북한의 실상’이다. 도덕과와 사회과 등 관련 교육과정 내용에 고정불변의 항목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후 국가 미래’는 분명히 통일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중요성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야 할까?

연구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전쟁위험이 없어짐’을 꼽았다. ‘원래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비율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통일이 남한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도’에는 82.8%가 이익이 된다고 답했지만, ‘통일이 자

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도'에는 61.1%만이 이익이 된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통일 문제를 당위적 차원보다는 현실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런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청소년들의 통일 의지가 줄어든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볼 때 통일이 현실적으로 학생들 본인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수치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다.

부동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 이해에 대한 기존의 통일교육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통일부(통일교육원)에서는 매년 「북한 이해」를 발간·보급한다. 이에 따르면 “분단 현실에서 북한은 동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인 이중적 존재이다. 북한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상대이다.” [2018 북한 이해, 통일부(통일교육원)]

정부(통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다. 그런데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이해 교육은 각 기관(주체)별로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자신이 가장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발표자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10년 전에는 1위가 '같은 민족'이었는데, 2018년에는 '핵무기'가 압도적으로 1위다. 학생들이 통일의 이유에서 보여주었던 현실적 접근을 북한이해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주민생활, 교육·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은 호소력이 떨어진다. 객관성을 내세우면서도 명시적이거나 은유적으로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을 서구 사회나 남한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자는 내재적 접근도 종종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공식 교육과정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북한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해 교육에 대한 프레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적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붕괴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닮고 닮은 '북한 붕괴론'이라는 점입니다. [박한식·강국진, 「선을 넘어 생각한다」(부키, 2018)]

셋째, 통일교육이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학생참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발표자는 정책 제언으로 남북 수학여행 등 남북청소년 간의 교류 활성화, 남북청소년 학술세미나 개최 등 학술행사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가능한 내용부터 점진적으로 교

류하자는 제언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런 접근도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행사 중심이라는 것이다. 수학여행, 스포츠 대회, 문화유적지 답사, 온라인 게임대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교류의 콘텐츠 자체는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이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남북학생교류는 ‘차분한 통일교육’ 보다는 ‘전시용 통일행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통일교육이 학교를 넘어 보여주기식, 경쟁식 통일행사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에 차분히 녹아들어가게 해야 한다. 대회와 행사 중심이 아니라, 교실의 정규교과 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 북한 수행여행은 어렵지만 수업시간에 모둠별 학생들끼리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테마형 수학여행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통일부(통일교육원), 교육부, 교육청은 통일교육 지침이나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하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단위학교의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 지원의 방법으로는 재정적 지원,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통일교육 전문인력풀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원과 단위학교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단위학교의 통일교육 역량이 키워지면, 그 역량을 바탕으로 관 주도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아니라 개별학교 단위의 남북청소년 교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학자 풀란(M. Fullan)은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많은 시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변화(change)의 이론’과 ‘변화를 일으키는(changing) 이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이클 풀란 지음, 이찬승·은수진 옮김, 「학교개혁은 왜 실패하는가」(21세기교육연구소, 2017)] 이것을 현재의 우리 현실에 비추어보면, 통일교육의 ‘변화(change)’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변화를 일으키는(changing)’ 실질적인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근래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테제의 마력에 빠져 있다. 이제 통일교육은 이 마력에서 빠져 나와 ‘방향이 아니라 실행이다’로 나아가야 한다. 위로부터 주어진 보여주기식 실행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풀뿌리 통일교육의 실행으로…….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모 상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난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오랜 기간 남북 분단으로 부터 기인된 서로 간의 이질감은 남북 간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이에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 될 필요가 있음. 남북 청소년 간 수용성 증진과 동질성의 회복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이질감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 청소년이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는 주요 기제로 작용 할 수 있으며, 통일교육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통일교육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반공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온 실정임. 무엇보다 현재 대한민국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혹은 보수 혹은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혹은 지역특성, 세대와 계층 간 서로 다른 경험치에 의해 통일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갈등이 항존함.
- 이에 남북한 통합을 위해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의 통합을 위한 상호 수용성 제고와 동질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함.
 - ※ 독일의 청소년 사회통합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과 과정상에 경험 할 수 있었던 시행착오와 개선과제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통일 전 독일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심한 이질감이 존재했으며, 서독의

경우도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실현하기 전까지 통일교육은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이용되는 형편이었음. 이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 이후 동서 간 긴장 완화와 화해가 조성되면서 통일정책은 상호공존을 통한 평화와 협력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며, 서로의 통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 할 수 있었음. 이후 서독의 통일교육 방향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진행되어져 왔음.

- 실태연구결과 통일의 불필요성(왜?)과 청소년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높은 응답률은 기존의 통일교육이 남북한 간 이질감 완화 혹은 동질성을 회복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 있음.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합의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첫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통일 대비 통합을 준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내 통일교육의 내실화가 필요
- 둘째, 상호 수용성 기반위에 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한 균형 잡힌 방향으로 통일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통일 한국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통일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될 필요가 있음. 학생 청소년 이외에 통일교육 담당교사나 강사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필요함
- 넷째, 남한 청소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이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진행.
- 다섯째, 청소년 현장에서도 실제로 서로 공유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통한 남북 간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음.
(스포츠나 문화공연과 잼버리 이외에 상호 공유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통한 교류. 예를 들어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남북한에 걸쳐있는 선열의 항쟁의 흔적을 찾는 프로그램 Ex: 임진왜란, 중국임시정부의 이동 경로 탐사 및 남북한에 걸쳐있는 애국지사의 삶의 여정을 콘텐츠로 활용하는 등)
- 여섯째, 학교 교육에서의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청소년 현장과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 지 수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

통일교육은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평화로운 또는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생각해 보는 학습을 촉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통일이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통일이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임을 깨달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들이 한반도 통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들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의 비판적인 성찰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자신과 밀접한 것으로 여기고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남북의 이산가족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편지도 교환하지 못하는 상태로 수십년을 지내야만 했는가?

다른 나라들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데, 왜 북한 땅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가?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에 속해있는데, 왜 서울역에서 유럽행 기차를 탈 수가 없는가?

왜 한국은 많은 액수의 국방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한국의 남성들은 지구상의 많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가?

전쟁이 잠깐 멈추어지는 것을 규정한 정전협정은 왜 65년 동안이나 평화협정으로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일교육에서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평화로운 또는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생각해 보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방법에 대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교수자 중심의 활동이었고, 통일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수활동이 중심이었던 것을 바꾸어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문제와 통일을 직접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협력의 대상이자 적대적 대상이라는 딜레마 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와 안보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할 경우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이 커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육에서는 같은 민족인 북한과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다른 상황에서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적대 국가인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학습자들은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큼니다.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또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라고 답변한 청소년들이 21.4% 였다는 사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납니다.

통일교육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우리민족이 처한 딜레마 상황을 직면하게 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논쟁적 문제들(controversial issues)을 주제로 한 토론식 수업으로 통일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나 민족의 숙원은 통일이라는 등의 당위적 목표를 강조하는 통일 교육은 그만하고, 한반도의 실제 상황에 그대로 직면하게 만들고, 그 모순된 한반도의 상황 위에서 통일의 미래를 그려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통일교육이 원래 목표했던 통일의식 고취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인 쇄 2018년 8월 14일

발 행 2018년 8월 1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 415-2114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